

# 다대 일대의 포유류

이정옥·김용철  
(대한산악연맹 광주연맹)

## 요약

다대 일대에 대한 포유류조사는 2019 년 4~10 월에 실시되었으며, 이 지역에서 확인된 포유류는 아종을 구분하여 총 9 종이었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은 확인되지 않았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II 급은 1 종(샐)이었으며, 보호종은 확인되지 않았다.

##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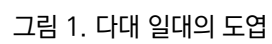
다대(도엽번호: 358164) 일대에 대한 기존의 포유류조사는 노·지의 동선 일대의 포유류 (2008)에 의해 수행된 바 있다. 이 조사는 제 5 차 전국자연환경조사의 일환으로 포유류의 현황 및 서식유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 2. 조사지역 및 방법

조사는 다대(도엽번호: 358164) 일대에서 실시되었으며(그림 1), 자세한 조사일정은 표 1 과 같다. 조사대상지역은 1:25,000 지형도를 9 개의 격자로 나누어 7 개 격자에 대하여 1~2 회씩 실시하였다. (그림 1), 조사방법은 “제 5 차 전국자연환경조사 포유류 지침서 개정”을 따랐다(국립생태원 2019).

표 1. 조사일정

격자 \ 조사	1 회 조사	2 회 조사
E1	2019. 9. 15	—
E2	2019. 4. 22	—
E3	2019. 9. 17	2019. 10. 18
E4	2019. 8. 20	—
E5	2019. 4. 21	—
E6	2019. 4. 21	—
E9	2019. 4. 21	—



### 3. 결 과

#### 3-1. 전체 포유류 현황

다대 일대에서 확인된 포유류는 아종을 구분하여 총 9 종이었다(표 2). 이를 격자별로 보면, E1 이 5 종, E2, E3 가 4 종, E4, E5 가 2 종, E6 이 3 종, E9 가 1 종이었다.

표 2. 다대 일대의 포유류 현황

(○: 출현, - :미출현)

종명	각 격자에서 관찰된 종								
	E1	E2	E3	E4	E5	E6	E7	E8	E9
두더지	○	-	○	-	-	○	-	-	○
샐	-	○	-	-	-	-	-	-	-
너구리	-	○	-	-	-	-	-	-	-
족제비	-	○	-	○	○	-	-	-	-
멧돼지	○	-	-	-	-	-	-	-	-
고라니	○	○	○	-	-	○	-	-	-
청설모	○	-	○	-	-	○	-	-	-
다람쥐	○	-	○	-	-	-	-	-	-
집쥐	-	-	-	○	○	-	-	-	-
합계(총 9 종)	5 종	4 종	4 종	2 종	2 종	3 종	0 종	0 종	1 종

#### 3-2. 서식지 유형별 포유류 현황

다대 일대에서 확인된 서식지 유형별 포유류는 산림에서 7 종, 경작지에서 3 종, 수계에서 4 종, 시가화에서 1 종, 도로에서 3 종으로 확인되었다(표 3).

표 3. 다대 일대의 서식지 유형별 포유류 현황

(○: 출현, - :미출현)

종명 \ 서식지 유형	산림	경작지 (논, 밭, 과수원)	수계 (하천, 저수지)	시가화	도로(임도 및 지방도, 국도)
두더지	○	○	-	-	-
샐	-	-	-	-	○
너구리	○	-	○	-	-
족제비	○	○	○	-	○
멧돼지	○	-	-	-	-
고라니	○	○	○	-	○
청설모	○	-	-	-	-
다람쥐	○	-	-	-	-
집쥐	-	-	○	○	-
합계(총 9 종)	7 종	3 종	4 종	1 종	3 종

표 4. 다대 일대 서식지 유형별에 따른 출현종 서식 흔적수 현황

구분 유형	종명	계 (흔적)	배설물	족적	털	굴	휴식처 (보금자리)	직접 관찰	식흔	사체	기타
산림	두더지	6				6					
	너구리	1	1								
	족제비	1						1			
	멧돼지	1							1		
	고라니	4	4								
	청설모	4							4		
	다람쥐	2						2			
경작지(논, 밭, 과수원)	두더지	1				1					
	너구리	1		1							
	고라니	1		1							
수계(하천, 저수지)	너구리	1	1								
	족제비	1		1							
	고라니	1		1							
	집쥐	1								1	
시가화	집쥐	1						1			
도로(임도, 지방도 등)	살	1	1								
	족제비	1						1			
	고라니	1	1								

## 3-3. 멸종위기 야생생물 현황

다대 도엽에서 조사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은 확인되지 않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II 급은 1 종 (종명: 살)이었다(표 5).

표 5. 다대 일대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현황

(○: 출현, - :미출현)

격자	종명	살
E1	-	-
E2	○	B
E3	-	-
E4	-	-
E5	-	-
E6	-	-
E9	-	-

표 6. 생태·자연도 반영 주요종(수달, 담비, 산, 하늘다람쥐)의 서식지 판단 기준표

종명	기호	내용
수달, 담비, 산, 하늘다람쥐 (공통)	A	반경 125m 이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금자리가 발견되고 실체가 1 회 이상 확인됨
	B	반경 125m 이내에 동일종의 서로 다른 시기의 동일흔적(배설물, 발자국, 식흔, 털 등)이 2 곳 이상 다른 지점에서 발견된 서식환경이 양호한 지역
	C	반경 125m 이내에 서로 다른 종의 흔적 또는 실체가 발견된 서식환경이 양호한 지역 ※ 1 급과 2 급이 확인된 경우, 1 급 서식지로 판단
	D	반경 125m 이내에 동일종의 2 개체 이상이 발견된 양호한 지역
수달	E	어린 새끼와 어미가 함께 활동하는 모습이 관찰되는 서식 환경이 양호한 지역 (번식 활동 지역)
	F	장기간에 걸쳐(최근 배설물 포함) 반복적으로 남겨진 수달 배설물 무더기(수달 화장실)가 발견된 서식환경이 양호한 지역 ※ 수역(하천, 습지, 저수지, 해안) 경계부에서 양안 20m 이내
하늘다람쥐	G	실체가 1 개체 이상 확인되거나, 최근 배설물이 1 곳 이상 발견된 서식환경이 양호한 지역

#### 4. 고 찰

다대 일대에서 서식이 확인된 포유류는 총 9 종이었다. 서식지 유형별로 생포트랩(sherman trap)을 명호도에 설치하였으나 포획된 소형포유류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산림 내 무인센서카메라 조사에서는 카메라 오작동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을숙도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II 급인 산가 서식 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조사지역은 도시에 형성된 도시공원 산림으로 임도와 산책로 등의 소로가 많이 되어 있어 인간의 간섭이 심한 지역으로 일부지역은 통제가 필요할것으로 보이며 을숙도는 철새도래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도로와 공원화가 되어 있어 사람의 간섭이 심한지역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II 급인 산의 배설물이 확인되고 있어 일부지역을 출입통제 지역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승학산, 노적봉도 임도와 등산로가 많아 일부 통제가 필요하다. 생태계의 훼손을 억제하면서 필요에 따라 인간과 야생동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5. 종합 및 제언

본 조사지역은 도시에 있는 도시공원화로 인간의 간섭이 심하고 산림개발과 훼손을 억제하고 출입을 일부 통제하는 것이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에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도시의 산업화와 신장림, 녹산 산업단지등 대형공단의 건설로 인하여 도로확장과 개설 등에 있어 동물의 이동 통로등을 설치하여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을 개선 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국립생태원. 2019. 제 5 차 전국자연환경조사 지침. 포유류.  
노정래외 1 인. 2008. 다대 일대의 포유류. 환경부.



[부록 1] 사진대지

	
사진 1. 너구리 배설물	사진 2. 두더지 굴
	
사진 3. 고라니 배설물	사진 4. 삥 배설물
	
사진 5. 무인센서카메라 설치	사진 6. 청설모 식흔